



한국제지연합회, 제지산업 발전 방안 세미나 위기에 처한 제지산업 “지종 변경 · 수출시장 개척 절실”

한국제지연합회(회장 최병민)는 지난 9월 9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한국 제지산업의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로 제지산업 발전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핀란드의 글로벌 제지 컨설팅기업 포리(Poyry)의 Timo Suhonen 핀란드 반타지역 대표, DALI ZHANG 중국 사업부 임원이 세계 제지산업의 동향 및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한국 제지산업

“환율변동 대비 지종변경 고려해야”

우리나라가 보유한 초지기는 연산 20만 6천톤으로 도입한 지 18.7년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아시아권인 인도네시아, 태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중국이 보유한 초지기가 워낙 크고 최신 기계여서 이에 대한 경쟁력은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imo Suhonen 대표는 우리나라의 제지산업이 갖고 있는 강점(S)은 우수한 기술 및 인력 보유, 전력·화학 등 연관 산업으로부터의 든든한 지원이며, 약점(W)은 원료의 높은 해외 의존도, 중국보다 높은 인건비 등 중국과의 경쟁 심화, 중국·일본보다 작은 국내 시장 등을 꼽았다. 기회요인(O)으로

는 우리나라가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시장에 포함돼 있으며, 인도네시아와 가까운 지역적 위치에 있고, 특수지 시장에 강력 대응하고 있는 점, 위협요인(T)으로는 제지 수요의 감소, 원료의 높은 수입의존도에 따른 환율 변동성 영향 심화 등을 꼽았다. 그는 한국 제지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산 원가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채산성, 타당성 등을 검토해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지종에 대한 생산은 줄이고, 패키징, 티슈, 특수지 등 성장하고 있는 지종으로의 변경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시장은 내수 시장이 작은 만큼 수출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밖에 없으며, 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하던 세계 제지산업, 2010년 이후 주춤

1950년부터 2010년까지 60년 동안 세계 제지산업은 매년 끊임없이 성장했다. 1950년대 연평균성장률(CAGR)은 5.5%로 3백만 톤, 1960년대 CAGR은 5.7%로 530만 톤, 1970년대 CAGR은 3.1%로 450만 톤, 1980년대 CAGR은 3.5%로 690만 톤, 1990년대 CAGR은 3.1%로 870만 톤, 2000년부터 2014년까지 CAGR은 1.5%로 520만톤이 매년 증가했다. 1950년부터 2010년까지 꾸준히 성장하던 종이 생산량은 2010년부터 정체를 보이고 있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세계 종이 및 판지 수요를 살펴보면 신문용지와 인쇄용

지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패키징과 티슈용지는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0년 생산량은 3억2700만톤으로 패키징 53%, 인쇄용지 31%, 신문 10%, 티슈 6% 등으로 구성돼 있었으나 2014년 생산량은 4억100만톤으로 증가했지만 패키징과 티슈용지에 한했고, 인쇄용지와 신문용지는 감소했다. 구성비는 패키징 59%, 인쇄용지 26%, 신문용지 7%, 티슈용지 8%였다.

같은 기간(2000년~2014년) 아시아시장 종이 및 판지 수요를 살펴보면 2000년 생산량은 1억700만톤(패키징 56%, 인쇄용지 29%, 신문 10%, 티슈 5%)에서 2014년 1억9100만톤(패키징 62%, 인쇄용지 26%, 신문 6%, 티슈 6%)으로 생산량이 증가했으며, 패키징 부문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포리가 예측하고 있는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제품군별 수요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포리는 세계 종이시장은 평균 1.1%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중 티슈가 2.9%로 가장 높은 성장률, 패키징용 박스지인 컨테이너보드지와 백판지가 뒤를 이어 2% 이상으로 예측됐다. 이에 반해 신문용지, 도공지, 비도공지 순으로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생산성 크고 최신 초지기 보유한 중국

2014년 지역별 초지기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이 초지기의 생산성이 가장 높고 최신의 초지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 뒤를 이어 북미, 서유럽 국가가 보유한 초지기의 생산성도 높지만 15년 이상 오래된 구형이었다.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초지기는 생산성도 낮고 오래된 구형이었다.

Timo Suhonen 대표는 “세계 종이산업에서 아시아 특히 중국의 역할은 매우 커지고 있다. 전 세계 제지공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의 제지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제조업에 돈을 쏟아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세계 종이 및 판지 수요를 살펴보면 신문용지와 인쇄용지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패키징과 티슈용지는 증가했다.

부으면서 제지산업 역시 크게 성장하고 있다”라며 “2030년 중국 제지산업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6%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인도가 주목할 만한 국가”라고 지목했다. 그는 앞으로 15년 동안 제지생산량이 8천만톤이 증가할 것이며, 중국과 인도가 주축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가격변동성 큰 고지 사용량 급증

중국은 가장 큰 종이 및 판지 소비국가다. 한국은 중국, 일본, 북미, 독일, 인도에 이어 6번째로 큰 원료소비 시장이다. 세계 6대 종이 및 판지 소비국가 중 4개 국가가 아시아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아시아 시장은 매우 큰데, 2014년 세계 종이 및 판지시장 통계를 살펴보면 세계 시장의 45%를 아시아가 차지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아시아지역 종이 원료를 살펴보면 고지 사용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펄프, 비목재는 줄어들고 있다. 2000년 종이를 만드는데 사용

된 원료는 1억300만톤으로 이중 고지가 56%로 절반을 넘었고, 펄프(26%), 비목재(14%) 순으로 많았다. 2014년에는 2억9400만톤으로 2000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고지 사용량은 2000년보다 많은 68%를 차지해 고지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지 수출입을 살펴보면 북미지역이 2천만톤으로 가장 많은 양을 수출하고, 중국이 가장 많은 양인 2700만톤을 수입하고 있다. Timo Suhonen 대표는 “현재 고지 회수율은 일부지역의 경우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상당한 양이 회수되고 있으며, 중국은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 회수된 고지를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인쇄시장의 감소로 회수할 고지가 줄어들고, 유럽 에너지 회사의 경우 고지를 에너지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가 늘고 있어 앞으로 고지 확보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고지의 경우 가격변동성이 커 수요가 조금만 늘어도 가격이 폭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예측했다.☞

**포리에 대해 PÖYRY

포리(Poynry)는 핀란드 헬싱키에 위치한 글로벌 제지 컨설팅 기업이다. 제지뿐 아니라 에너지, 산림산업, 화학, 수력발전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간 1만여건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 5억7천만~8천만 유로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아시아, 유럽, 남미, 북미, 호주 등 5개 대륙에서 450여명의 컨설턴트가 활동하고 있다.